

기사의 악플의 밤

구지현, 박소형, 송지현, 이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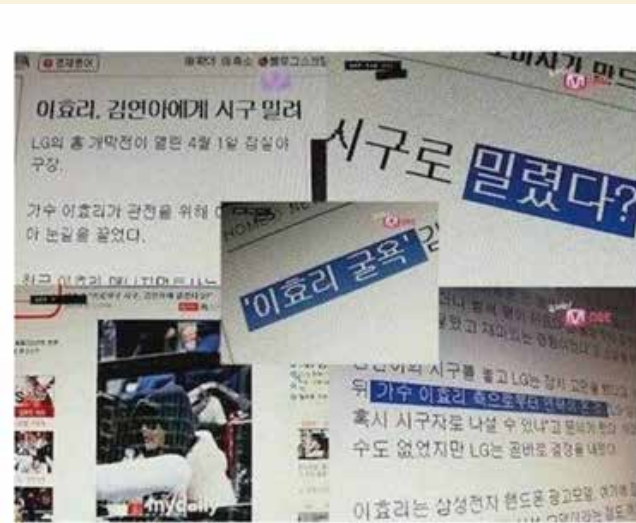
목차 ★

- 연구 배경
- 가설 및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및 과정
-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 연구 배경

- 최근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커짐
- 그러나 악성댓글을 불러오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확대

| 연구 배경



그리고 그 날 저녁..
그 날 시구를 했던 김연아와 이효리를 엮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효리가 직접 시구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LG는 이효리가 아닌 김연아를 택했고,
이게 이효리의 굴욕 사건으로 무장해
김연아에게 밀린 이효리의 굴욕으로 올라온 것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효리는 기사를 확인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완전 서럽게 울음(ㅠㅠ)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은 과거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

| 연구 배경

- 단순히 최근 사태의 주범을 악성댓글로 지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실제로 악성댓글을 유도하는 소위 ‘관중 저널리즘’에 대한 지적도 많아지는 중

| 연구 주제 및 가설

- ‘관중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예기사의 실태를 파헤쳐보고자 시도
- 악성댓글을 불러오는 연예기사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

| 연구 주제 및 가설

- 특히 연예인의 SNS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하거나, 네티즌 반응이나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주목

파이낸스 투데이, 2019.1.4

‘정신과적 문제’ 없나?
설리 인스타그램 기행 분석한 전문가 말 들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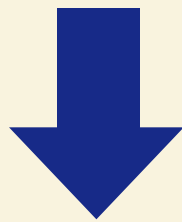
또 다른 전문가는 (...)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라며 설리의 행동을 해석했다.

세계일보, “또 ‘노브라’ 사진 올린 설리... 누리꾼은 ‘설전’” 2017.10.24

배우 설리가 공개한 ‘셀카’에 누리꾼들은 또다시 노브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연구 주제 및 가설

하지만 기자가 네티즌과 관계자라는 익명의 목소리에 기대 자신의 **부정적인 의도**를 기사에 담는 것은 아닐까?



가설

**SNS나 네티즌, 관계자 반응을 인용해 작성된
연예기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띠 것이다.**

| 연구 방법 및 과정

- (1) 연예기사 분석이 용이한 5개 연예매체
(헤럴드팝, 오센, 스타뉴스, SBSfune, 뉴센)가
2019.1.1~12.1 동안 보도한 기사 5,000건 씩 랜덤 선정
- (2) 수집한 기사 중 포토 기사 및 TV 기사 / SNS 키워드와
네티즌 반응, 익명 관계자가 사용된 기사를 분류

|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분류에서 사용된 키워드

기사 레이블	기사 내용 포함 키워드
포토 기사	포토], [포토, [사진
TV 기사	TV], [스브스夜]
SNS 기사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익명성 기사	네티즌, A씨는, 익명, 관계자, 누리꾼, 측근, 최측근

|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크롤링 후 전처리 과정

1. 각 기사 앞 부분 기자 이름 제거

```
# 앞 부분기자 이름 없애기 = 리플과 관련 함수
def del_writer(text):
    text = text.replace('-', '')
    text = text.replace('=', '')
    text = text.replace("< ", "")
    text = text.replace("> ", "")
    if text.strip()[0] == '[':
        try:
            text = text.split('기자')[1].strip()
        except:
            try:
                text = text.split('에디터')[1].strip()
            except:
                text = text
    return text
```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크롤링 후 전처리 과정

2. 각 기사 뒷 부분 기자 이름, 이메일, 기타 사항 제거

```
# 뉴스 뒷 부분 : 뉴스엔 김명미 mm28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def del_ns(text):
    result = ''
    split_text = text.split('뉴스엔')
    # 보통의 경우
    if len(split_text) == 3:
        result = split_text[0]
    # 기사 내용에 '뉴스엔' 포함될 시
    else:
        for st in split_text[1:-2]:
            result += st + "뉴스엔"
        # 마지막 '뉴스엔' 제거
        result = result[:-1]
    return result
```

```
# 헤럴드POP 뒷 부분 : popnews@heraldcorp.com E-POP 현류스타 바로 앞에서 본다 \ '리얼리뷰' 헤럴드팝 (아이비TV)- Copyrights
#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f del_hp(text):
    text = text.split('popnews')[0].strip()
    return text
```

```
# SBS fune 뒷 부분 : 알량
```

```
# 스타뉴스 뒷 부분
# 1만 김미하 기자 mxxoxo@mtstarnews.com 스타뉴스 단독 > 생생 스타 현장> 스타 인기영성 <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만 김미하 기자 letmein@ 스타뉴스 단독 > 생생 스타 현장> 스타 인기영성 <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만 > 스타뉴스 단독 > 생생 스타 현장> 스타 인기영성 <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우선 세로 위면 삭제
def del_st(text):
    text = text.split('▶')[0].strip()
    return text
```

```
# 오션 뒷 부분
# 1만 /nyc@osen.co.kr[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하면 헛지, SNS
# 2만 / soul1014@osen.co.kr
# 3만 /hyun309@osen.co.kr[사진] 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레드벨벳#RedVelvet#유작병크
```

|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필터링 과정

1. '포토' 기사 레이블링

```
# 포토 찾아 return
photos = [{"포토"}, {"[포토"}, {"[사진"}]
def is_photo(title):
    if any(p in title for p in photos) :
        result = 1
    else:
        result = 0
    return result

# 함수 확인
title = ns_df.iloc[4995,0]
print(title)
print(is_photo(title))

'선녀들' 조선판 국정농단 공개 "막장드라마 뺄쳐"[오늘TV]
0
```

2. 'TV' 기사 레이블링

```
# 방송 찾아 return
tvs = [{"TV"}, {"[스브스夜"}]
def is_tv(title):
    if any(t in title for t in tvs) :
        result = 1
    else:
        result = 0
    return result

# 함수 확인
title = ns_df.iloc[4995,0]
print(title)
print(is_tv(title))

'선녀들' 조선판 국정농단 공개 "막장드라마 뺄쳐"[오늘TV]
1
```

|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레이블링 과정

1. SNS 기사 레이블링

```
# SNS 단어 찾아 return
def find_sns(text):
    sns = ""
    if '인스타그램' in text:
        sns += '인스타그램 '
    if '트위터' in text:
        sns += '트위터 '
    if '유튜브' in text:
        sns += '유튜브 '
    sns = sns.strip()
    return sns
```

2. 익명 취재원 포함 기사 레이블링

```
# 익명 단어 찾아 return
def find_ano(text):
    anonymity = ["네티즌", "A씨는", "익명", "관계자", "누리꾼", "속근", "최측근"]
    anos = ""
    for ano in anonymity:
        if ano in text:
            anos += ano + " "
    anos = anos.strip()
    return anos
```

| 연구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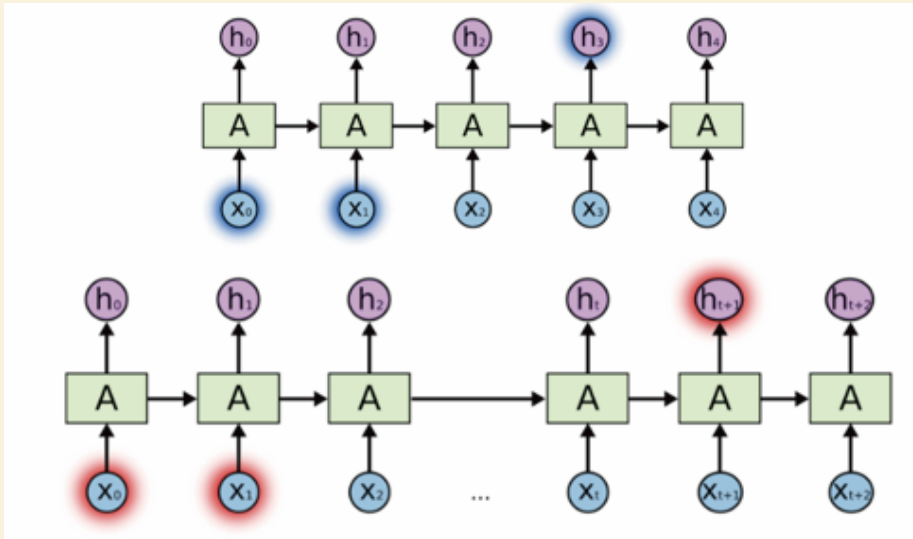
(3) 기사 중 익명 취재원(네티즌, 관계자)가 들어간
기사 전체 감정분석

- 감정분석 모델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중
Bidirectional LSTM 모델 사용

➡ 분석 결과를 0~1 scale로 내며,
0.5를 기준으로 긍정/부정 label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 연구 방법 및 과정

* 시도한 RNN 모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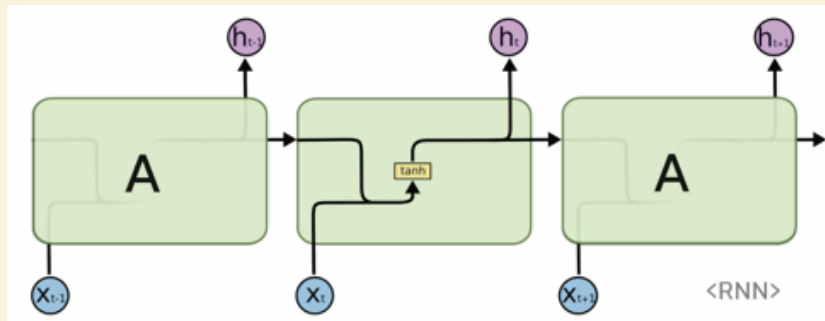


Vanilla RNN

$y \rightarrow$ output $h \rightarrow$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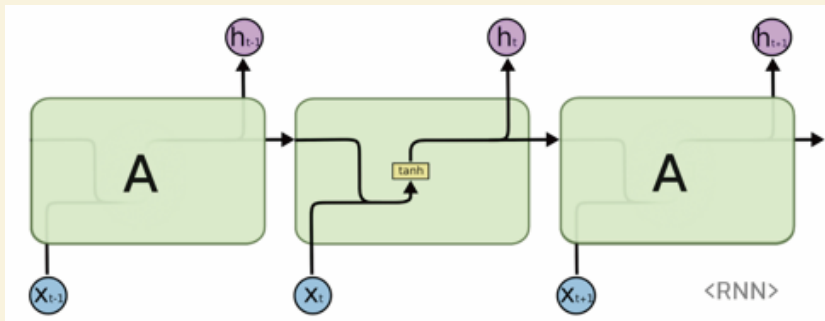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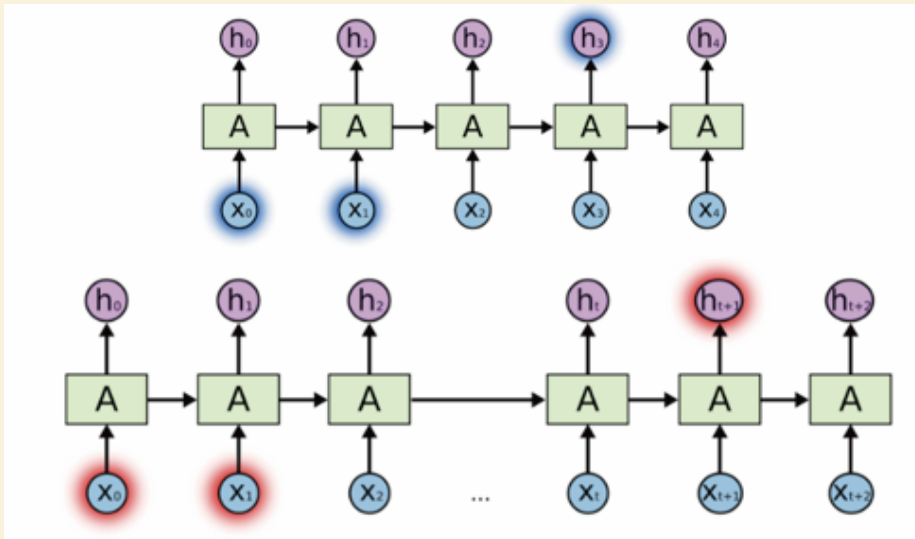
$$h_t = \tanh(W_{hh}h_{t-1} + W_{xh}x_t + b_h)$$

$$y_t = W_{hy}h_t + b_y$$



| 연구 방법 및 과정

* 시도한 RNN 모델 비교



Vanilla RNN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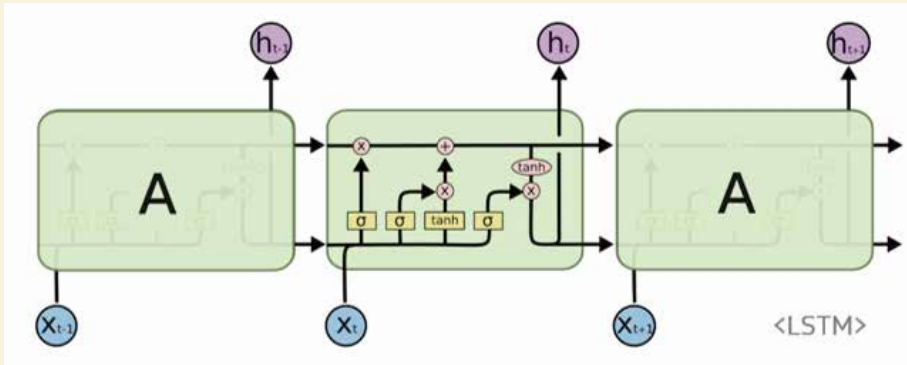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설계됨
즉, 문장의 '맥락'을 읽을 수 있음

단점

문장 사이 gap이 클 수록
문맥을 반영하기 어려워짐

| 연구 방법 및 과정

* 시도한 RNN 모델 비교



LSTM

(Long Term Short Term Memory)

$y \rightarrow$ output $h \rightarrow$ sequence

$$f_t = \sigma(W_{xh_f}x_t + W_{hh_f}h_{t-1} + b_{h_f})$$

$$i_t = \sigma(W_{xh_i}x_t + W_{hh_i}h_{t-1} + b_{h_i})$$

$$o_t = \sigma(W_{xh_o}x_t + W_{hh_o}h_{t-1} + b_{h_o})$$

$$g_t = \sigma(W_{xh_g}x_t + W_{hh_g}h_{t-1} + b_{h_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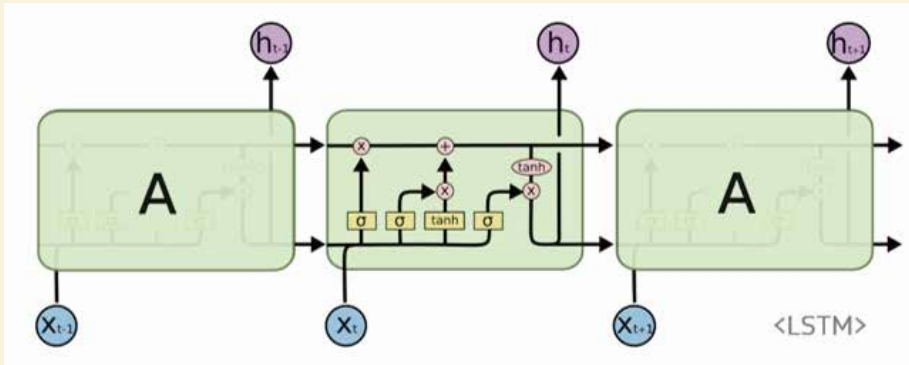
$$c_t = f_t \odot c_{t-1} + i_t \odot g_t$$

$$h_t = o_t \odot \tanh(c_t)$$

$$y_t = W_{hy}h_t + b_y$$

| 연구 방법 및 과정

* 시도한 RNN 모델 비교



LS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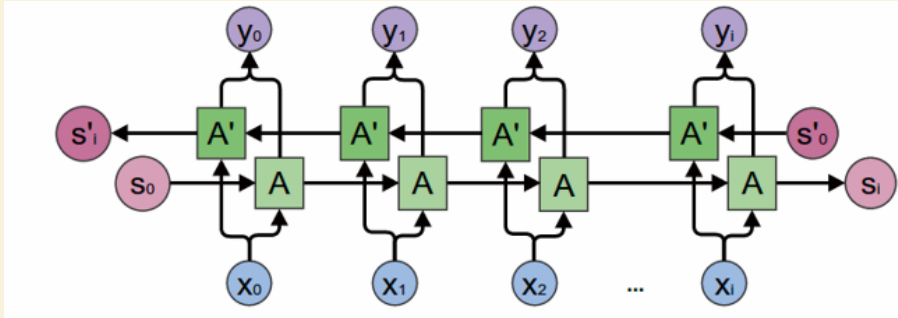
(Long Term Short Term Memory)

4개의 레이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것을 뒤 모듈로 가져가고, 어떤 것을 가져가지 않을 지 정함

➡ 문장 간 gap이 크더라도 문맥 반영 가능

| 연구 방법 및 과정

* 시도한 RNN 모델 비교



Bidirectional LSTM

y -> output h -> sequence

반대 방향으로도 문맥
고려하는 모델 ➡ 채택

Hyperparameter, Parameter

```
In [2]: args = easydict.EasyDict({"batch_size": 64, "num_epoch": 10, "random_seed": 5, "lr": 0.003,  
    "vocab_size": 25000, "embed_dim": 100, "hidden_dim": 256, "output_dim": 1,  
    "n_layer": 2, "dropout": 0.5, "bidirectional": True, "model": "bidirectional_lstm",  
    "optim": "Adam", "mode": "train", "save_model": "model.pt"})
```

Train data 영화 리뷰 data 50,000개

Train accuracy 82%

| 연구 방법 및 과정

5,000개 기사 유형별 비율
(포토기사, SNS 기사, TV 기사)

	헤럴드팝	오센	스타뉴스	SBSfune	뉴센
포토 기사	18.5%	42.8%	14.0%	26.7%	42.5%
SNS 기사	25.3%	7.4%	13.8%	5.0%	13.9%
TV 기사	4.0%	5.2%	5.2%	6.1%	7.2%
합계	47.8%	55.6%	33%	37.8%	63.5%

| 연구 방법 및 과정

익명 취재원(네티즌, 관계자)인용 기사/SNS 기사 감정분석 결과

	헤럴드팝	오센	스타뉴스	SBSfune	뉴센
SNS 기사	25.3%	7.4%	13.8%	5.0%	13.9%
익명 사용 비율	4.4%	4.3%	13.3%	8.4%	3.1%
SNS기사 중 익명 사용 기사	3.4%	10.2%	48.2%	20.6%	8.0%
익명 기사 감정 분석 평균	0.57	0.59	0.71	0.63	0.61

| 연구 방법 및 과정

	헤럴드팝	오센	스타뉴스	SBSfune	뉴센
익명 기사 감정 분석 평균	0.57	0.59	0.71	0.63	0.61

➡ 전반적으로 기사 내용 긍정적

이유

1) 감정분석기가 영화리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돼 기사분석에선
성능 떨어짐

언론사별 긍정/부정 label된 기사를 50개 씩 랜덤 추출해 정확도를 확인하니
긍정 기사의 경우 사용한 모델의 정확도와 유사했으나(75~80%)
부정 기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임

2) 분석한 기사 text 중 익명 취재원 인용 부분이 아닌 곳에서
긍정적 표현이 있을 수 있음

| 연구 방법 및 과정

(3)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 취재원을 뜻하는 표현 기준으로 text split
그 이후 내용만 감정분석

*기사 레이블링 과정

익명 키워드 이후 부분 추출

```
def split_ano(text):  
    anonymity = ["네리즌", "A씨는", "익명", "관계자", "누리꾼", "속근", "최속근"]  
    ano_text = ""  
    for ano in anonymity:  
        if ano in text:  
            split = text.split(ano)[1:]  
            for s in split:  
                ano_text += ano + s  
            break  
    ano_text = ano_text.strip()  
    return ano_text
```

익명 키워드가 등장한 이후에 인용구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부분만 추출

| 연구 방법 및 과정

보완 후 기사 감정분석 결과

	헤럴드팝	오센	스타뉴스	SBSfune	뉴센
익명 기사 감정 분석 평균	0.58	0.54	0.66	0.55	0.54

- ➡ 전반적으로 감성 분석 결과값 평균 낮아짐
정확하게 익명 취재원이 말한 내용만 추출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label되고 더 정확한 값을 낼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여전히 긍정에 치우친 결과값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 확인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내 긍정적인 익명 인용문의 사례 뉴센 기사 분석 결과

title	sns	ano	quote	sentiment percent
양희은 육	인스타그램	네티즌	네티즌들은 "표정ㅋㅋ 애잔", "너는 이들이 모니?", "어머나!!! 엄마 닮았어요. 아구 귀여워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사진=양희은 인스타그램)	0.978931487
정가은, 육	인스타그램	네티즌	네티즌들은 "치명적인 아름다움",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정가은 인스타그램)	0.96414721
류효영X류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낸다.류효영과 류효영은 지난해 각각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JTBC '뷰티 인사이드'에서 활약했다. (사진=류효영 인스타그램)	0.958855093
'치명적 팜'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의 심장을 멎게 했다.소녀시대 태연은 10월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태연은 보안 어깨를 뒤흔드려내고 뒤흔들고 표정을 짓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누리꾼들은 "매일이 리즈", "귀엽지만 한 줄 알았는데" 등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에 푹 빠진 눈치다.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태연은 솔로 데뷔앨범 'I'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11:11', 'Rain', '사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가수로 성장한 태연은 10월 발매를 목표로 솔로 앨범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태연 인스타그램)	0.952858806
박한별, '늘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 역시 최근 송리가 클럽 버닝썬 논란에 휘말리면서, 송리와 사업 파트너로 일했다는 것이 자칫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	0.950793028
"사람이 너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여섯이라니 대단해요", "한 가족으로도 사진이 짝 찰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박지현 인스타그램)	0.941087961
뉴이스트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망고 너무 잘생겼어", "안경 쓴 민기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렌 인스타그램)	0.92361933
'스윙스♥'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정말 예쁘다", "운동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언니는 부족하게 댕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보라는 래퍼 스윙스와 공개 열애 중이다.	0.896746695
"기성 배우들과 달라"	누리꾼	누리꾼	누리꾼들은 "너무 잘생겼다", "얼굴 일렬하는 것처럼 작품도 일렬해주세요!", "훈훈합니다", "역통사고 당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오현중은	0.890695155
차오루, 핑	인스타그램	네티즌	네티즌들은 "몸매가 예뻐요", "귀여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차오루 인스타그램)	0.888552845
"얼굴 없는	인스타그램	익명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제발 더러운 짓은 하지말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인가? 대체 왜 그러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방송인 양정원도 "무	0.885443807
'우아한 가'	이규한	모네티즌	네티즌들은 '이규한 살인자인데도 왜 이렇게 불쌍하지', '이규한 이번엔 인생개 경신한 듯', '이규한 아닌 모안수 상상 안 됨', '모안수 쪽을 진짜 충격적	0.864247024
'마리텔V2'	죽	야노시네티즌	네티즌과 시청자를 사로잡았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최초로 해외 원정을 할 예정이어서 생방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보	0.862754822
이지애, ♥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응원 의 메시지를 보냈다. 절친 오정연 역시 "오래 보면 포근포근하게 꺼안아 줄테야. 우리 언니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 힘내"라는 글을 남	0.862666845
손연재, 청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사랑스러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손연재 인스타그램)	0.861734152
Mnet,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는 7월 26일 뉴스엔에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	0.858202696
'복두꽃'	조정석	한예리	관계자들의 주요판단지표인 2049시청률에서도 '복두꽃'은 각각 3.2%와 4.0%를 기록, 당시 2.0%와 2.3%에 그친 MBC '이웃'을 비롯해 역시 전체 방송	0.826585352
루나 이마	인스타그램	누리꾼	누리꾼들은 "에프엑스에 이런 미녀가 있었다니", "엄청 예뻐졌다" 등 몰라보게 예뻐진 미모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2009년 걸그룹 에프엑스로 데뷔	0.823117137

연구 방법 및 과정

기사 내 부정적인 익명 인용문의 사례 뉴센 기사 분석 결과

title	sns	ano	quote	sentiment_percent
'아이돌 성폭행 피소' 네티즌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뉴스8' 자료화면 등을 통해 A씨가 S5501 김형준임이 공개됐다. 김형준 측은 보도 직후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0.165082142
김희선 '어' 인스타그램누리꾼			누리꾼들은 "얼굴을 가려도 예쁘고 편하게 입어도 예쁜데 자전거를 타고 예쁘다니", "어디가 43살 애엄마냐, 불공평하다" 등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다.한편 김희선은 지난해 11월 종영된 tvN 토일드라마 '나인홀'에 출연했다. (사진 위=김희선 인스타그램/사진 아래=뉴스엔 DB)	0.168159813
前 연플라!인스타그램누리꾼			누리꾼이 자신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는 캡처본을 공개하며 "어린 팬들 앞에서 썬 칩 하지 말고 직접 연락해라. 나 좋아하면 그냥 덕질 해도 돼"	0.172576576
류지혜 "낙태" 충격 고누리꾼			누리꾼들은 "그런 고백을 왜 하나", "낙태 이야기는 방송에서 할 게 아니다" 등 류지혜의 발언을 질타하는 한편 당시 이영호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0.185152218
구혜선 에세이집 출간관계자 누리꾼			관계자는 "소속사 측과도 얘기를 해줘야 하고 출간 시기는 계속 변수가 있다. 구혜선 씨의 요청으로 안재현이 언급된 부분은 삭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재현 출연 프로그램 관련 하자 요구도 빚발치고 있는 상황. 일부 누리꾼들은 MBC 새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과 tvN '신서유기7' 하차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안재현은 사랑꾼 이미지로 발탁된 화장품 회사 광고도 중단됐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0.211088166
이연용 국민청원까지 네티즌			네티즌은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연용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0.257413507
뜨거운 '동백꽃' 드라마네티즌			네티즌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2주차 드라마 부문 1위는 3주 연속 KBS2 '동백꽃 필 무렵'이 차지했다. 극중 까불이 검거, 김하늘에게 눈물	0.270627439
윤지오 "故 인스타그램누리꾼			누리꾼들은 "응원합니다", "결국 선이 이깁니다! 꽃길만 걸으소서", "응원해요. 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등 반응을 보였다.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욕격	0.286242008
'항거' 고아유튜브 네티즌			네티즌들이 영상을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이번 영상은 전 세계 주요 80여개국 3백여개의 재외동포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0.341742406
연플라잉 유희송 "父" 네티즌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날 연플라잉은 전설 한동준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를 선곡, 매력적인	0.367005616
송리 25일 인스타그램네티즌			네티즌의 댓글에 "17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의미 심장한 글을 적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송리는 또 다른 강남 클럽을 로비장소로	0.367237866
이로한, 해 인스타그램누리꾼			누리꾼들은 화면 속 남성을 방탄소년단 정국, 해쉬 스완으로 추측했다. 이후 해쉬 스완은 일부 악플러들에 받은 메시지를 공개, 분노를 표했다.다음은	0.368183196
선미, 타이틀곡명 '날리네티즌			네티즌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 "스포요정 이선미가 티저 보내줬다" "길을 걸다가 선미 티저 받았는데 신선하네" "공격적인 마케팅" "이번에도 세 글자!" 등의 반응과 함께 사진을 업로드하여 선미의 컴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100명 추첨을 통해 선미 '날라리' 한정판 앨범을 선물하는 에어드럼 이미지 인증 이벤트에도 폭발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선미는 매번 범접할 수 없는 콘셉트를 자랑하여 독보적인 색깔의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북미, 아시아, 유럽 18개 도시를 순회한 월드투어 '워닝(WARNING)'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명실상부 '글로벌 K팝퀸'의 면모를 과시했다.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 '누아르'까지 메가 히트를 이어온 선미가 자작곡 '날라리'까지 5연타 히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377118051

| 연구 방법 및 과정

가설이 틀린 이유

SNS 기사를 비롯한 연예기사가 연예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추측
특히 연예인 SNS의 경우 자기 PR을 위해 긍정적인
게시글을 업로드해 기사 역시 긍정적으로 서술될 거라 추정

미디어오늘, “연예인과 연예기자는 바늘과 실?”, 2002.4.25

스포츠지의 연예인 관련 기사는 대부분 인간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가
연예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피

언론중재, “연예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년 여름호

온라인 매체들을 통하면 기획사가 원하는 논조대로,
포털을 통해서 훨씬 광범위하게 노출이 가능

|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 연예계 특정 이슈로 한정해 기사를 분석하면 초기 가설이 맞을거라고 추측
- 빅카인즈 키워드 가중치 분석 기능을 활용해 기사 분석
기사에서 특정 검색어와 함께 많이 다뤄진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려줘 검색어와 키워드 간 관계를 알 수 있음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故 구하라를 검색어로 기사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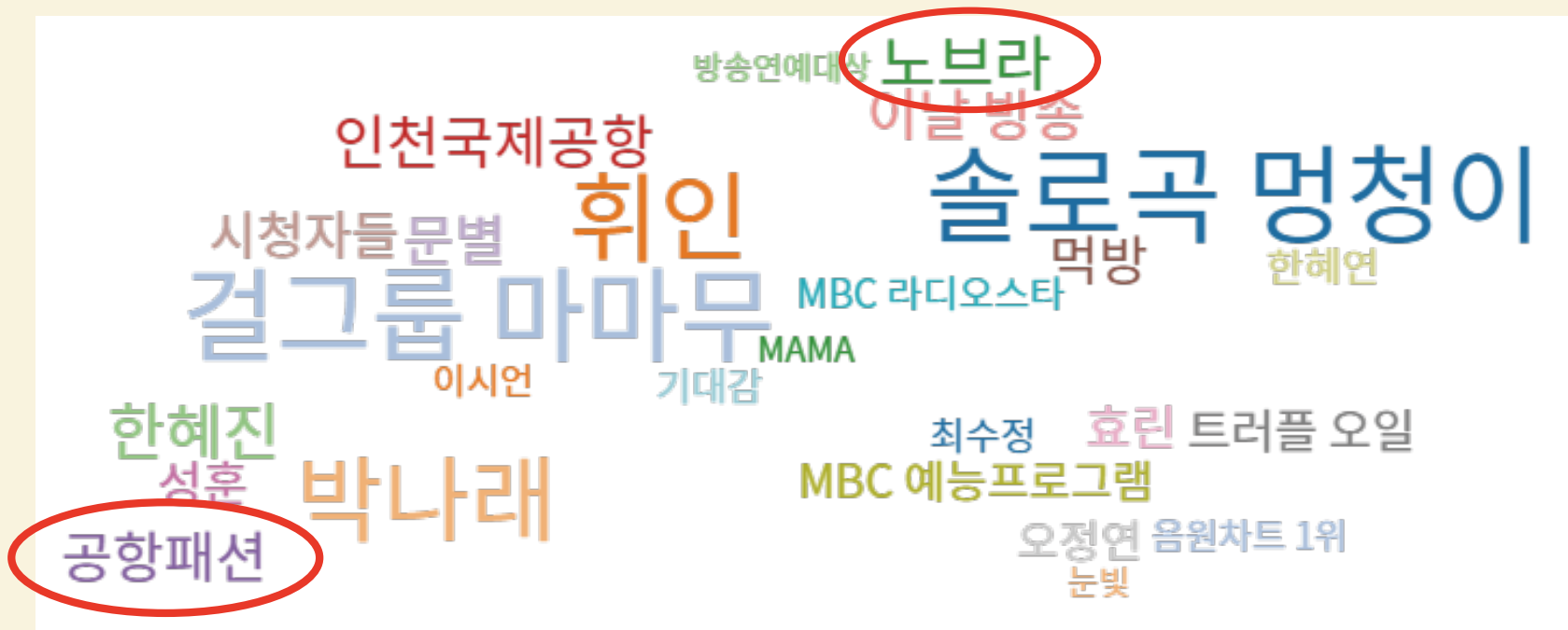
2019.1.1~12.1, 빅카인즈 아카이빙 된 54개 언론사 대상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화사를 검색어로 기사 분석한 결과

2019.1.1~12.1, 빅카인즈 아카이빙 된 54개 언론사 대상



|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 두 경우 모두 논란이 된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어를 다룬
기사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 가능

연구 방향 수정 필요했다는 점 확인

- 향후 연구 발전 시 특정 이슈를 선정해
기사 감정분석을 시도하면 ‘관종 저널리즘’과 악성 댓글
간 상관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 저널리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계의 노력

1. 경향신문, “설리 끈질기게 따라다닌 무책임 저널리즘”

빅카인즈 가중치 분석 기능을 이용해 기사에서 ‘설리’와 함께 비중있게 다룬 키워드가 무엇인지 분석

2018.10.13~2019.10.13

순위	키워드	빈도수	가중치(언급량)
1위	악플	2,264	196.38
2위	인스타그램	841	284.12
3위	진리상점	765	111.59
4위	SNS	557	165.99
5위	노브라	533	112.37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봐도 악플이나 SNS를 비중있게 다룬 기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 연구 한계, 향후 가능성 및 결론

- 저널리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계의 노력

2. 민주언론시민연합, “늦은 보고서를 반성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설리 생전 6개월 간 고인에 대해 보도한 매체들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 10대 종합 일간지, 경제지 7개, 연예매체 17개

- 설리 SNS 노출 논란에 대해선 연예매체보다 경제지가 더 관련 기사를 많이 작성
- 설리' 노브라' 논란에 대해선 일간지가 경제지보다 더 많은 기사를 보도
- 설리 관련 '논란'에 대한 보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매체는 서울신문



Q&A





감사합니다♡